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사무장 : 주정희 마리아 육오공-육칠팔-일이삼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2026년 공동체 사목방향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녹) 연중 제5주일]

2026년 2월 8일(제2172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화(5pm~8pm), 토/일(8am~4p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대건관 1호, 3호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수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제1독서 이사야서 58,7-10

화답송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밝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2,1-5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5,13-16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성가]	8시	입당	57	봉헌	216	성체	160	파견	421
	11시	입당	57	봉헌	216	성체	160, 163	파견	421
연중 5주일	2월 8일(주일)			2월 10일(화)	2월 11일(수)	2월 12일(목)	2월 13일(금)	2월 14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은자 마트로나	김미숙 말가리다			황혜정 데레사				사목회
독서	정기환 프란치스코 정영희 클라라	최윤기 유스티노 황선희 세실리아			이명란 아네스				사목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정인경 가브리엘라			정인경 가브리엘라				장희숙 루시아
묵주기도		황혜정 데레사			황혜정 데레사				사목회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합시다.

■ 미사안내

- 후임 신부님이 부임하시기 전까지
- 주일 미사: 오전 8시, 11시
집전 사제: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 *미사예물 check payable to: Jesuit Community at JST
- 평일 미사: 수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집전 사제: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
- *미사예물 check payable to: Dae Seuk Oh
- 화/목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 *후임 **김학배 안젤로 신부님** 부임 일정은 미정입니다.
- * 미사 봉헌 예물은 해당 주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미리 한달 또는 장기 봉헌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 매 수요일, 토요일, 교중미사 30분 전에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2월 묵주기도 지향 : 오시는 신부님을 위하여

■ 2월 성경 통독

-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1,1-25

■ 2월 14일 토요일 미사 전례: 사목회

■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 영성 특강

- 일시: 오늘 2/8일(일) 오후 12시 40분
- 장소: 성당(독서대 앞 2층에 앉아 주세요)
- 주제: 이주의 황무함, 그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
- *수녀님의 영성 특강은 2026년 상반기에 매월 1회
- 3월: 성서, 이민의 기록, 4월: 매일 새롭게
- 5월: 일상의 영성 6월: 노년의 영성

■ 설날 합동위령미사

- 2월 17일은 한국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 일시 : 2월 15일(일), 11시
- 합동위령미사를 신청하실 분은 2월13일(금)까지 사무장 주정희 마리아 자매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사예물 check payable to: Jesuit Community at JST
- 합동위령미사 후에 성모회에서 본당 전 신자 분에게 떡만두국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2월 15일(일) 설날 점심 후에 윗놀이 한마당과 젠가 게임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한 분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 2026년 재의 수요일과 사순시기

- 2월 18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당일 미사는 오전 11시(오대석 신부님 집전)와 오후 7시 30분(정홍철 신부님 집전) 두 대의 미사가 있습니다.
- 당일 오후 7시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슬기롭고 영적인 사순시기 보내기
- ①사순시기 동안 평일미사 참여하기
- ②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하기 (매주 토요일 및 주일 교중미사 전)
- ③사순시기 동안 매일 당일 매일미사 책 읽기
- ④삼중기도 매일 기도하기(기도표에 체크하기)

■ 성지 회수

작년 성지주일에 축복한 성지를 2월 15일(일)까지 성당 입구 성지 회수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성지는 재로 만들어 재의 수요일에 재 없는 예식 때 사용하게 됩니다.

■ 부활 판공

- 부활 판공 성사는 매 미사 30분 전에 있습니다.
- 단, 교중미사 때는 1시간 전에 있습니다.

■ 모임 및 회의

- 샌리엔드로: 2월 8일 영성특강 후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 2월 8일 영성특강 후 교육관 107호
- 안나요아킴: 2월 21일(토) 11시 미사후 친교실

■ 밥나눔 안내

- 메뉴:우거지 된장국(이마트로나), 미역국(이요안나), 제육볶음(박세실리아), 비프 샌드위치(이다리아), 카레라이스(유수산나), 김치 수제비(이아네스), 아이스크림(학부모회)
- 다음 번 밥나눔: 2월 15일 전신자 떡만두국(성모회)
- 문의 : 송성숙 아네스 자매님 (오일공-삼칠오- 오일사찰)

■ 공동체 기도 지향

조상히마리아, 정화봉로사,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김옥자마리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수인 안드레아, 조지현 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최혜자벨라데다, 이기석 보나벤투라, 임윤택 루시아

■ 세금 보고서를 위한 봉헌금 납입 증명서 신청

- 봉헌금 납입 증명서는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성당 시설 이용 준수 사항

- 성당 시설을 이용하실 단체는 사전에 반드시 공동체 시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주중에 성당 친교실 또는 부엌 등을 이용하신 후 반드시 **소등과 문단속을 확인**하여 주세요.
- 혹시 성당 게이트문이 열린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행정직원(오일공-육일공-칠육팔육)에게 곧바로 연락주세요.

■ 성당 내 안전 유의

-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 금지
-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⑤ 게이트 출구에서 좌우 살피고 운전하기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본당 청소(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문의 : 이덕용 안드레아(오일공-칠칠삼-사삼팔삼)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스킨라스티카(2/10)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올바른 이성이 내린 정의로운 판단 따르는 분노는 '선'하다

요즘 뉴스에서는 '분노'로 인한 이해하기 힘든 범죄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분노에 차 흥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칼부림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에 대한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이와 유사한 사태들을 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거나, '분노는 하나의 결점이기 때문에 덕스러운 삶에 기여할 수 없다'는 일부 윤리학자들의 판단에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크게 주목받았던 드라마 <글로리>에서 여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찾아가 하나씩 복수할 때 많은 이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분노는 인간의 행복을 해치는 것인가, 아니면 행복을 위해 긍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는 것인가?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언제나 선한가, 아니면 때때로 선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노에 관한 이론은 이런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그 안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분노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발견된다.

선과 악을 모두 지향하는 분노의 원인

토마스는 분노를 '복수에 대한 욕구(ira est appetitus vindictae)'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분노는 사소한 일보다는 '중차대한 것'에서, 곧 어렵고 심각한 악을 경험할 때 일어난다. 분노는 자신이 겪은 상해를 되갚고자 하는 마음의 총동이며, 그 안에는 욕망하고 희망하고 향유했던 선을 옹호하려 하고, 동시에 공격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그 악이 갚아 지기를 바라는 이중의 목표가 함께 들어 있다.(I-II,46,2) 그래서 토마스는 "분노는 겪은 고통에서 생겨나고 복수에 이르며 즐거움으로 끝난다"(I,81,2)고 말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분노의 원인은 언제나 '분노하는 사람을 거슬러 행해진 어떤 악'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거슬러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면, 또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분노하지 않는다.

특히 '마땅히 있어야 할 존중의 결핍', 즉 경멸(parvipensio)이 분노를 크게 자극한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 모멸감을 더 크게 느끼고, 반대로 아주 낮은 사람에게서 모욕을 당할 때 분노가 더욱 격렬해지기도 한다.(I-II,47,4) 예컨대 부자가 가난한 이에게 모욕을 받았을 때, 감정이 크게 폭발한다. 그러나 가난한 이도 '부당한 모멸감'을 당할 때, 얼마든지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다.

분노와 이성 - 동반과 방해

흔히 분노를 '이성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토마스의 관점은 더 세밀하다. 제대로 보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이 폭발하기보다 당한 악과 겪게 될 벌을 저울질하는 정확한 비교와 추론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토마스는 "분노는 언제나 이성을 동반한다"고 말한다.(I-II,46,4)

그러나 분노가 이성을 동반한다고 해서, 분노가 항상 이

성에 복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토마스는 "분노는 다른 정념들보다 더 명백하게 이성의 판단을 방해한다"(I-II,48,3)고 말한다. 분노는 각자의 기질에 따라 다양하며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몸 전체를 뒤흔들기 때문에, 불(火)에 비교할 수 있다. 분노가 심해지면 피가 끓어오르고, 심장이 빨라지며, 심지어 혀의 움직임까지 방해해서 말을 더듬게 하거나 말문을 막히게 만들 수 있다.(I-II,48,2) 이런 신체적·정신적 동요 때문에 분노는 깊은 사유와 관상, 차분한 판단을 크게 어렵게 만든다.

정당한 분노와 죄가 되는 분노

그런데 토마스는 분노를 무조건 죄로 보지 않는다. 분노는 정의로울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어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원하기 때문에, 분노는 불의(iniustitia)보다는 정의(iustitia)에 더 가까운 셈이다.(I-II,46,7) 분노가 이성의 적절한 통제 하에서 일어나 '정당한 복수'일 경우, 그것은 정의라는 덕의 발로로 여겨진다.

반대로, 분노가 무질서한 복수를 지향할 때 - 법적 질서를 벗어나 사적인 방식으로 응징하려 하거나, 죄를 없애기보다 죄인 자체를 파괴하고 절멸시키려 할 때 - 그것은 죄가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토마스는 분노를 칠죄종(七罪宗, 주요죄) 가운데 하나로 보면서, 분노에서 말다툼, 고성, 저주, 폭력 등 여러 악습이 흘러나온다고 분석한다. 분노는 정당하게 다루어질 때 정의를 위해 타오르는 불이 되지만, 방치될 때는 많은 죄악을 낳는 '악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토마스는 불의를 보고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도 하나의 악습으로 본다. 그는 정당한 원인에 대해서 그 느낌에 상응하는 움직임의 부재, 곧 처벌하려는 의지의 결핍을 분노의 결핍이라는 악습으로 설명한다. 즉 분노해야 할 자리에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 불의 앞에서 무감각한 태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성찰을 바탕으로 토마스는 증오(odium)가 분노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한다. 증오는 악을 그 자체로서 원하지만, 분노는 '정당한 복수라는 선'으로 악을 원하기 때문이다.(I-II,46,6) 분노하는 사람은 적어도 정의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에게 내리는 벌이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선을 위한 것일 수 있다. 반면 증오는 상대에게 그 어떤 선도 바라지 않고 악을 그 자체로 원하므로, 분노보다 훨씬 사악한 정념이다.

토마스는 '올바른 이성'과 일치되는 정당하고 칭찬할 만한 분노를 인정한다. 이성에 앞서 선행하여 이성을 어지럽히는 분노는 악하지만, 이성이 내린 정의로운 판단을 따른 후속하는 분노는 선하며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노는 교회의 선익, 사회 정의, 약자의 보호를 위한 투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성전을 정화할 때 분노하셨다.(마태 21,12-13 참조) 이런 분노는 상처받은 감정에서가 아니라, 정의와 경건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신앙인은 분노를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만 하기보다 자기 안의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정의 감각과 어떤 상처에서 나오는지 살피면서, 그것을 정의와 사랑을 위한 힘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주일학교	총
미사참례인원	37	152	11	200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주일학교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영자(11/25), 조진행(1-2), 천종욱(2), 이명국(2), 이정연(2) 김영길(2), 조우송(2), 윤춘주(2-12), 이재오(1-3), 최삼남(1-2), 이명란(2)								이명란		조우송 이명란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2/8(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2/8(일)	생	송아네스/장요한아일랜드	양무열 미카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황정숙 말피나	박동신 세레나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이현경 보나	가족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최혜순 미카엘라	임유지 비비안나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황혜정 데레사	임유지 비비안나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전지형 알렉스	임유지 비비안나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생	천다니엘/아네스 가정	임유지 비비안나
	연	김준철 어거스틴	김 켈뚜르다		생	이바로/파트리샤 가정	임유지 비비안나
	연	김마르코	가족		생	송수산나/토마스 가정	임유지 비비안나
	연	김재성 제이슨	김지호 알렉스		생	이베다/스테파니아 가정	임유지 비비안나
	연	윤Dana 요한	정혜경 데레사		생	차리디아/루시아 가정	임유지 비비안나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가족		생	김상윤 안젤로	임유지 비비안나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고영남 안드레아		생	전진영 베로니카	임유지 비비안나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RON LWIN		생	김상실 가를로	임유지 비비안나
	연	박정희 올리엠타	김원덕 시몬		생	양카이	전 데레사
	연	천성배	천다니엘		생	전소영	전 데레사
	연	천성배	강신호 요한		생	고영주 데레사/황경옥	천다니엘
	연	김청수 바오로	김용찬 프란치스코		생	김문환 베드로	양무열 미카엘
	연	유낙양 베로니카	가족				
	연	유낙양 베로니카	정혜경 데레사	2/11(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Frank Terrence	김젼마		연	장민우 베난시오	임크리스티나
	연	최순일요셉	가족		연	유낙양베로니카	임크리스티나
	연	전옥분	자녀		생	이연 베드로	이욱경 글라라
	연	이숙자 루시아	이마태오		생	이영 크리스티나	이욱경 글라라
	연	장은용 도미니카	임유지비비안나		생	이 준오비	이욱경 글라라
	연	임봉윤	임희숙 세트리다		생	이 라일라	이욱경 글라라
	연	황보파 젼마	임희숙 세트리다				
	연	장민우 베난시오	권마가렛	2/14(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장민우 베난시오	임유지비비안나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장민우 베난시오	김젼마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장민우 베난시오	한안젤라		연	장민우 베난시오	송아네스
	연	장민우 베난시오	이안드레아/아네스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연	장민우 베난시오	김문환 베드로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장민우 베난시오	이에스터		연	이숙강 엘리사벳	가족
	연	변희상 스테파노	천다니엘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아
	연	양혜숙 세레나	양무열 미카엘		생	이연 베드로	이욱경 글라라
					생	이영 크리스티나	이욱경 글라라
2/8(일)	생	전데레사/전알렉스 가정	천다니엘		생	백 카렌	이욱경 글라라
	생	송아네스/장요한아일랜드	천다니엘		생	양 웨인	이욱경 글라라
	생	송아네스/장요한아일랜드	임유지 비비안나				

<p>Samuel Kim 건강 보험 전문 메디케어/메디칼 처방약 보조. ACA 무료상담 (510)418-0243 samkim515@gmail.com CA Lic. #4474816</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폴킴 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 (510)847-5837 DRE #01851957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